

김상조 위원장, 심상정 대표 등과 만나



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장은 8일 국회에서 정외당 심상정 대표, 추혜선 의원 등과 함께 정외당 중소상공인위원회·자영업자위원회와 간담회를 가졌다.

정외당 중소상공인·자영업자위원회는 사전에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전면 폐지 필요성과 가맹점·대리점 관련 개선사항에 대한 제안서를 보냈고, 김 위원장은 이날 전속고발권 폐지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성성모 대표, 정보통신공사협 서울시회장 당선



정보통신공사협회 제18대 서울시회장에 성성모 신성하이텍 대표가 당선됐다.

8일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서울시회는 제18대 서울시회장 선거를 실시한 결과 기호 2번 성성모 후보가 이름을 올렸다고 밝혔다.

성 신임회장은 지난 2009년 서울시회 운영위원을 시작으로 2012년 감사, 2015년 부회장을 역임한 바 있다.

허진규 회장, 포스텍 명예 공학박사 학위



허진규 일진그룹 회장이 포스텍(포항공대, 총장 김도연) 명예 공학박사가 됐다.

일진그룹은 허진규 회장이 9일 열린 포스텍 2017학년도 학위수여식에서 명예 공학박사 학위를 받기도 밝혔다. 제조업을 기반으로 하는 국내 기업으로는 최초로 박사 학위를 받게 됐다. 허진규 회장은 핵심 소재와 부품의 수입에 의존하는 열악한 국내 공업의 현실을 타파하는데 헌신했다.



한상인 부산시 클린에너지정책추진단장

부산시가 '클린에너지도시' 조성을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해 '클린에너지 원년'을 선포한 데 이어 클린에너지정책보좌관(3급상당) 직제를 신설하고 클린에너지추진단TF도 설치했다. 클린에너지추진단은 신재생에너지 정책, 보급, 육성을 강력하게 추진하는 역할을 한다. 클린에너지도시 정책 시행을 본격적으로 앞둔 원년선도 2년차, 한상인 부산광역시 클린에너지추진단장을 만나 앞으로의 실행 계획을 들어봤다.

“충분히 가능합니다.”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를 통한 전력 자립률 30%를 실현할 수 있다는 기자의 질문에 대한 한상인 클린에너지추진단장의 대답이다.

정부가 지난해 말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을 전체의 20%로 끌어올리겠다는 재생에너지 이행계획을 발표하자 일각에선 그 실현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마찬가지로 부산 에너지정책을 바라보며 ‘중앙정부도 힘든 것을 지자체가 어떻게 해내

기술적 잠재량은 신재생에너지 잠재량을 새롭게 정의하는 개념이다. 현재의 기술수준인 에너지 효율계수, 가동률, 손실요인 등을 고려해 산출할 수 있는 에너지 생산량을 말한다. 시는 재생에너지 설비 증설과 에너지산업 육성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을 2030년까지 약 7227GWh(설비용량 3063MW)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올해는 80MW 용량의 신재생에너지설비를 증설할 예정이다. 80MW 중 53MW의 태양광 발전설비가 학교 태양광,

“신재생 통한 전력자립률 30%실현 가능하다”

시민들이 에너지전환 통해 직접 이익 얻는 환경 조성돼야

냐는 세간의 의아함이 있었던 게 사실이다. 한 단장은 “2030년 예상되는 우리 시의 전력소비량은 2만4000GWh”라며 “이것의 30%에 해당하는 7200GWh의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은 충분히 실현가능하다”고 말했다. 부산시가 목표하는 ‘3030’은 2030년까지 발전비중의 30%를 신재생에너지 발전으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전력소비량 대비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이 30%가 되는 ‘자립률’을 말한다.

그는 “2016년 신재생에너지백서에 따르면 부산시의 태양에너지 기술적 잠재량은 발전량 기준으로 약 12만GWh”라며 “이 중 6%만 달성해도 7440GWh, 즉 2030년에 목표하는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을 생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시민편드, 민간주관 사업 등을 통해 들어선다. 특히 시는 ‘1가구 1태양광’이나 시민편드 등 시민들의 참여를 권하고 있다. 한 단장은 “에너지 정책 실행에서 시가 가장 역할을 두는 건 시민”이라고 강조하며 “에너지 전환을 통해 직접 이익을 얻는 주체가 시민인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부산시에서는 정책 결정 과정에서나 시행에서 시민과의 접점을 늘려왔다.

한 단장은 “앞으로도 다양한 방법으로 재생에너지 보급을 늘릴 것”이라며 “시민뿐 아니라 산·학·연 관계자, 업계 종사자까지 모두가 함께 의사결정을 거치며 미래 먹거리와 비전을 제시하는 정책을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다짐을 전했다.

부산=김예지 인턴기자 kimyj@

코레일-철도노조, 해고자 복직 합의

노사 양측 “현안 과제 대화·타협으로 풀이될 것”

코레일(사장 오영식)과 철도노조(위원장 강철)가 해고자 복직에 전격 합의했다.

전국철도노동조합은 8일 노사대표자 간담회를 열고 해고 조항을 비롯해 철도발전위원회 구성, 안전대책 및 근무여건 개선, 평창올림픽 성공적 개최 등에 합의했다고 이날 밝혔다.

앞서 지난 6일 취임한 오영식 코레일 신사장은 취임식 이후 첫 공식 일정으로 대전 분사 앞 해고자 농성현장을 방문, 해고자 복직 등 문제의 해결을 약속한 지 3일 만에 나온 성과다.

철도 노사는 그간의 철도정책의 한계로 야기된 과업 등으로 인해 발생한 해고자에 대해 조속한 복직조치를 시행하고,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노사 갈등을 불러온 각종 현안과 과제에 대화와 타협으로 원만히 해결키로 하고 이전의 대립과 갈등 노사관계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자는 데도 뜻을 같이했다.

또 전문가와 시민사회 등과 함께 철도발전위원회(가칭)를 구성해 철도 재도약을 위한 혁신활동에 나서는 한편, 청년일자리 창출

과 철도 조합원의 안전대책 마련과 근무여건 개선 등의 과제도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이와 관련 강철 위원장은 “복직 합의가 길게는 14년 해고의 세월을 모두 보상해줄 수는 없지만, 그동안의 아픔을 치유하는 첫걸음이 되길 바란다”면서 “고통스러운 해고의 나날들을 옆에서 함께 지켜준 해고자들의 가족들에게도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98명의 해고자들은 짧게는 4년, 길게는 14년까지의 장기간 해고로 경제적 어려움은 물론 가정 붕괴, 심리적 불안 등으로 비정상적 생활을 지속해 왔다.

김광국 기자 kimgg@



8일 코레일 본사에서 열린 노사 대표자 간담회에서 오영식 코레일 사장(왼쪽)과 강철 철도노조 위원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전력거래소 신임 이사장에 조영탁 교수 내정

전력거래소 신임 이사장으로 조영탁 한밭대 경제학과 교수가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조 교수는 다음주 산업통상자원부 임명 절차를 거쳐 공식 취임할 예정이다. 임기는 3년이다.



1959년 생인 조 교수는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 경제학 석·박사 학위를 받았다. 한밭대 교수협의회 사무국장을 거쳐 한국생태경제연구회(KSEE) 회장을 역임했다.

전력·에너지 전문가인 조 교수는 제4차 전력수급기본계획부터 8차 계획까지 위원과 워킹그룹장으로 활동했다. 또 제2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 전력분과 위원장 및 총괄분과 위원 등을 지냈다. 조 교수는 의무비용 내재화를 통한 가격 정상화와 공정경쟁을 위한 시장 제도개선, 분산전원 확대 등을 주장해 왔고, 에너지제도 개편도 이런 관점에서 추진돼야 한다는 소신을 밝혀 왔다.

최창봉 기자 ccb1970@

한수원, 노사합동 ‘설맞이 전통시장 장보기’



한수원이 노사합동으로 설 명절을 맞아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를 열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을 맞아 8일 오후 경주 중앙시장에서 노사합동으로 ‘설맞이 경주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를 실시했다. 이날 행사에는 전영택 사장직무대행과 갑병기 중앙노조위원장 등 임직원 40여명이 참여했다. 이번 행사에서 참가자들은 온누리상품권으로 쌀, 참깨류, 견어물, 생필품 등을 구매하고 상인들과 설 덕담을 나눴다. 또 장보기 행사를 통해 구입한 1000만원 상당의 생필품을 경주 종합사회복지관과 경주 지역 소외계층에 전달했다.

전영택 사장직무대행은 “우리 고유의 명절인 설을 맞아 경주 경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를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한수원은 경주의 대표기업으로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조재학 기자 jh@

원자력병원, 암 환자 건강교실 일정 발표



원자력병원(병원장 노우철)은 8일 유방암 환자와 보호자를 대상으로 ‘치료 후 관리까지 배우는 유방암 교육’을 실시하고, 2018년도 암 환자 건강교실 일정을 발표했다. 원자력병원은 치료 중이거나 치료를 마친 환자들을 대상으로 ▲유방암 수술 후 식이요법과 운동방법(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병원동 세미나실) ▲암 환자의 당뇨 관리(매월 1, 3주 목요일 오후 1시, 병원동 세미나실) ▲대장암 환자의 장루 관리(수시 개별 면담, 외과 외래 상담실) 등이 연중 준비된다.

인사: 직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실장급 ▲민정실 장 남평오, 국장급 ▲공직부관리관 송경원 ▲성과관리정책관 민용식 ▲농림국토해양정책관 임상준 ▲안전환경정책관 정호 ▲정무기획비서관 이경원 ▲민정민원비서관 이효진 ▲소통지원비서관 한경필 ▲새만금사업추진지원단 부단장 윤순희, 공정거래위원회, 국장급 전보 ▲대변인 윤수현 ▲기획조정관 김준하 ▲소비자정책국장 송상민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장 김성삼 ▲OECD대한민국정책센터 과전 배영수 ▲공정거래위원회 정진욱, 국장급 전보 ▲혁신행정범무담당관 한경중 ▲특수거래과장 이상현 ▲부산지방공정거래사무소장 오동욱 ▲공정거래위원회 연구실

The Electrical Works 월간 전기잡지 February 2018, 공사장 흥기가 된 타워크레인, 언제 사고 나도 이상할 것 하나 없는 상황, 국내 첫 민간화력발전소 '고성하이 1·2호기'현장을 찾다, 지식재산마스터플랜 추진 중인 성운모 특허청장, 한국전기공사협회 20개 시도회 정기총회 성료, '도전과 희망'의 아이콘 산악인 김홍빈, 황금개보다 잘 달리는 친환경 전기차기아차 니로

주3회 발간 기념 이벤트! 네이버 뉴스스탠드 전기신문 구독하고 선물받자!, 참여방법, 응모기간, 당첨자발표, 경품: CGV 영화관람권, 스타벅스 커피